전북지역 고로쇠 생산·판매 '흉년'

야간 온난화 등으로 수액 채취량 10~15% 감소

청탁금지법 영향 주문량 30% 급감 … 농가 '울상'

올 겨울 날씨가 좋지 않아 고로쇠 수액 채취량이 감소한 데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주문마저 끊기면서 전북지역 고로쇠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8일 고로쇠 수액 주산지인 전북 남원의 지리산 뱀사골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이 일대의 고로쇠 채취량은 평년보다 15%가량 줄었다.

덕유산 일대의 고로쇠 채취량도 10~15% 감소하는 등 전북 대부분 지역이 고로쇠 '흉년'을 맞고 있다.

생산량이 준 것은 온난화로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삼투압작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현교 전 한국수액협회장은 "수액은 기온, 날씨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밤 기온이 영하 5~6도까지는 떨어지고 일교차도 커야 하는데 이상고온현상으로 야간 기온이 제대로 내려가질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수 전 수액협회장은 "갈수록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수액 채취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평소 4월 초까지였던 채취 시기도 올해는 이달 중순까지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문량 감소도 심각하다. 뱀사골 고로쇠영농조합은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고 덕유산 고로쇠영농조합법인은 예년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다.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있지만, 청탁금지법이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명복 뱀사골 고뢰쇠영농조합 총무이사는 "그동안은 택배비를 포함해 5만5000원짜리인 상품을 주로 팔았으나 올해는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2만9000원짜리를 내놓았다"면서 "그런데도 주문 전화가 거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전 협회장은 "다음 주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지리산 일대의 수액 채취 기간은 앞으로 열흘 남짓밖에 안 될 것 같다"면서 "농가들이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연합뉴스

정읍 옛 도심 문화 공간 늘려 활성화

90억 투입 '연지아트홀' 건립

정읍시가 시내 연지동에 신축 중인 아트홀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늘려 옛 도심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감도〉

정읍시는 내달까지 90억여원을 들여 시내 연지동에 추진중인 아트홀을 완공하고 옛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로 삼을 계획이다.

옛 정읍군청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들어선 '연지아트홀'은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2017㎡) 규모로, 203석의 공연장과 전시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연지아트홀은 문화예술공연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쇠락한 옛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는 또 6억원을 들여 정읍역 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을 지나 연지아트홀에 이르는 750m 구간에 있는 상점의 간판을 역사와 문화, 업소별 특징을 담은 서체와 색채로 새롭게 꾸밀 계획이다.

'연지아트홀 걸어가는 길'이라고 이름 붙인 이 구간에는 150여 개 상점의 간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크기와 색채로 어지럽게 내걸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8일 "연지아트홀이 완공되면 국악과 농악의 상설공연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아트홀과 아름답게 재정비한 주변 공간이 옛 도심을 활성화하는 견인차 구실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 '상하농원' 꼬마농부 모집

농촌체험형 관광농원인 고창군 상하면의 '상하농원'이 농촌 체험하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홍보할 꼬마농부를 모집한다.

상하농원은 아름다운 자연과 건강한 먹거리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릴 어린이 홍보대사로 '꼬마농부' 20명을 모집한다.

꼬마농부는 상하농원이 마련한 각종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농원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만 5세부터 12세 이하의 어린이이며 지원 기간은 15일까지다. 꼬마농부 지원과 문의는 상하농원 홈페이지(www.sanghafarm.co.kr)로 하면 된다.

매일유업이 10만㎡의 부지에 조성해 작년 4월에 개장한 상하농원은 '짓다·놀다·먹다'를 주제로 생산과 가공, 서비스·관광산업을 하나로 묶은 '6차 산업 체험형 테마농원'이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바스락 바스락' 청보리밭에 봄이 왔어요

긴 겨울을 이겨낸 고창청보리밭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성큼 다가온 봄 햇살과 함께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일원에 청보리 새싹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경관농업축제인 '고창청보리밭축제'는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열린다. 고창군은 30여만평 드넓은 청보리밭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먹을거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부안군, 불가사리 액비 자원화 추진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부안군은 "'불가사리 발효 액비 자원화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63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84건의 사업을 신청받아 3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불가사리 발효 액비 자원화사업은 님비해소 분야에서 다른 사업보다 지자체간 협업과 자원을 활용한 주민 삶의 질 개선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과 정읍, 고창이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부안과 고창 일원에서 수거되는 불가사리를 활용해 자원화함으로써 불가사리 구제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방지와 함께 농가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이웃한 지자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군산조선소 폐쇄땐 학생 취업 길 막힌다"

전북 대학 총장협, 철회 촉구

전북지역 대학 총장협의회가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도크(dock·선박건조대) 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 조선공학과를 비롯해 기계, 전기, 전자 등 조선 관련 학과나 마이스터 고교(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길이 막히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 침체로 군산조선소를 폐쇄하려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조2000억원을 들여 2010년 문을 연 군산조선소는 매년 1조1000억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하며 700명의 직원과 사내·외 협력사 80여 곳에서 4000여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으나 조선경기가 악화하자 올 상반기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총장협의회는 "도내 대학은 군산조선소 가동에 맞춰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인재양성에 힘썼는데, 군산조선소를 폐쇄하면 학생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정부 발주 물량을 우선 군산조선소에 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nogusu@

전주시,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나서

전화부스 등 시설물 통·폐합

전주시가 걷고 싶은 도시 실현을 위해 인도 위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하는 '도시 비움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이 프로젝트는 도심 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들을 비워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도 위의 전화부스와 가로등, 교통시설물, 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1차로 전동성당~시청 입구 대신증권 사거리(팔달로 구간 1.3㎞) 구간 내 전화부스 등 인도 위 29개소 시설물을 통폐합하거나 철거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8일 "유사기능을 가진 인접 시설물은 통·폐합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도시 비움 사업과 함께 한옥마을, 전북대 인근 보행상권 활성화를 위해 충경로와 덕진지하보도 주변에 대한 인도 정비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실효성 논란' 목포 영어체험마을 폐쇄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목포 영어체험마을이 끝내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목포 영어체험마을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끝에 폐쇄 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폐쇄가 결정됐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폐쇄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목포시는 목포시의회 보고와 의결을 거쳐 영어체험마을 폐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논란은 그동안 목포의 영어체험마을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던 H기관이 예산삭감을 이유로 올해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에서는 27개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과 함께 30개 초등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위해 7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중복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목포영어체험마을은 지난 2006년 중앙초등학교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돼 왔으며, 첫 리모델링 비 21억원을 비롯한 매년 6억~1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100억원이 넘게 투입됐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 택 / 투 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종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협마트 현대아파트옆 매 19억9천만원

농 지 / 투 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온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답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 준 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팬션·노인요양시설 적합 7416㎡ 1억5천
- 담양군 금성면 경관좋음 9710㎡ 전원주택 단지적합 9억2천
- 장성군 북이면 면사무소에서 3km, 입암산밑 전과산 78197㎡ 한옥마을, 전원주택지 적합 경관·교통좋음 11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칠산바다 전망좋음 1억4500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좋은 남향땅 2738㎡ 집 2채도 적합 2억8백

투자 · 매도 · 교환

-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전 11296㎡ 전원주택·사찰 등 적합 4억5천
- 담양군 수북면소재지 7971㎡ 소형아파트 적합 15억2천
-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자연녹지 2939㎡ 다양한 용도 3억
- 화순군 화순읍 복숭아·매실·감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 367㎡ 주상복합 가능 5억
-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1488㎡ 찻집·가든 적합 1억9천
- 총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
-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833㎡ 창고·공장용 1억천

상가건물

- 월산동 대지 1115㎡ 건평 1274㎡ 공시가 15억 매도 28억2천
- 서구청 건너편 대지 257㎡ 5층 건물 677㎡ 사옥 등 적합 11억
- 월산동 동신대학병원 부근 대지 126㎡ 5층건물 297㎡ 은행 4억 매도 6억6천
- 월산동 농성초건너편 다가구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 총장로5가 도로접 대지 265㎡ 건평 995㎡ 은행2억 매도 11억천
- 남구 주월동 대지 1354㎡ 6층건물 4873㎡ 요양병원 250배드 적합 도로나 건물위치 좋음 법인이전함 은행 33억 매도 55억
- 월산동 운진각부근 대지 160㎡ 4층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 운림동 증심사입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안집 매도 6억7천

레스토랑 임대

- 광산구 쌍암동 호수공원부근 5층 건물중의 5층 420㎡, 1억에 150 시설과 비품완비·경관좋음 상담요망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 방3, 거실1, 전망좋음
- 2012년 신축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급매 - 1억
- 즉시입주가
- 문의 H. 010-8902-79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